존 메이어의 음악 특징에 관한 연구 -노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를 중심으로-

조유장,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yujang99@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by John Mayer -Focused on the Song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Yu Jang J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존 메이어의 곡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는 젊은 세대가 사회적 변화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을 주제로 한 곡이다. 이 논문은 가사와 음악적 구성을 중심으로, 메이어가 그들이 직면한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분석한다. 가사에서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강조하고, 잔잔한 멜로디와 느린 템포는 이러한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한다. 음악적 구성은 곡의 메시지를 강화하며, 대중음악이 사회적 비판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이 곡은 대중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예술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1. 서 론

존 메이어(John Mayer)의 곡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는 2006년 앨범 "Continuum"의 첫 번째 수록곡이자 존 메이어의 대표곡으로, 당시 미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곡으로 주목받았다. 이 곡은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확산되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존 메이어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이 속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무력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정치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 곡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는 주제적으로 사회적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곡에서 존 메이어는 제목과 그대로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반복적 가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직면한 무력감과 더 나아가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무기력감 속에서도 변화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가 엿보이며, 이는 21세기 초반 젊은 세대의 전형적인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존 메이어의 이러한 접근은 곡이 그저 정치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실적 제약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곡의 음악적 구성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잔잔한 기타 리프와 미디움 템포의 리듬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변화에 대한 인내심을 표현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음악적 요소는 곡이 단순한 저항가요가 아닌, 깊은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현실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존 메이어의 'Waiting in the world to change'를 분석해보면서 그의 가사와 음악적 요소가 어떻게 곡이 전달하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존 메이어의 대표곡인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악보에서는 편의상 곡의 특징이 반복되는 같은 구성은 생략하고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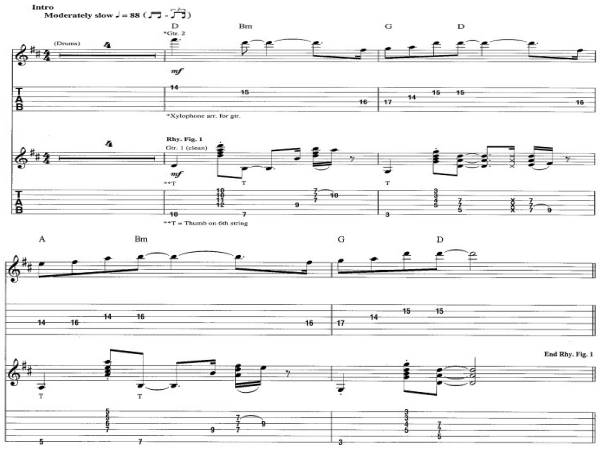
2.1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구조

곡의 형식과 진행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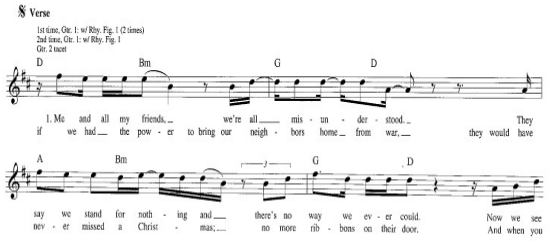
구성	마디
Intro	1~8
Verse 1	9~16
Chorus 1	17~24
Verse 2	25~32
Chorus 2	33~ 40
Bridge	41~48
Guitar Solo	49~56
Chorus 3	5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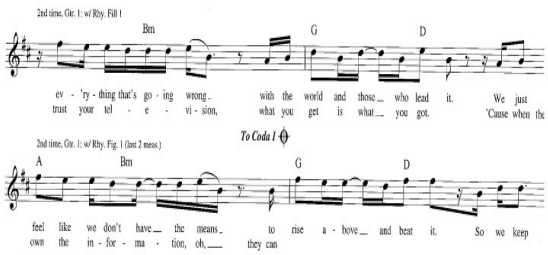
2.2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분석



[그림 1]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In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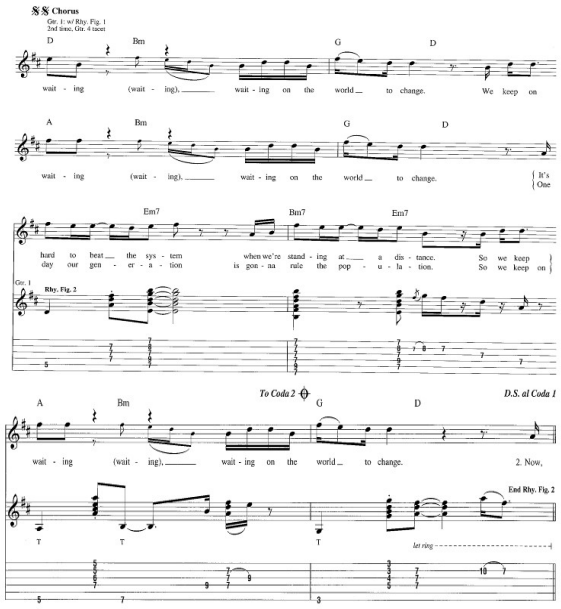
Intro는 드럼이 리듬 4마디를 먼저 연주하면서 시작한다. 5마디 째부터 실로폰으로 연주되는 메인 테마 멜로디와 베이스, 기타 백킹이 추가된다. 단순하지만 따듯한 느낌의 테마 멜로디와 기타리프가 청중을 맞이하며, 잔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인트로 리프는 반복되며 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이는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기타 코드 연주를 근음과 코드 멜로디를 나누어 연주한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근음을 잡고 나머지 코드를 해머링 주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꾸며준다. 이는 지미 헨드릭스와 스티비 레이본이 자주 사용하는 주법이다. 존 메이어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많은 노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코드를 연주한다.





[그림 2]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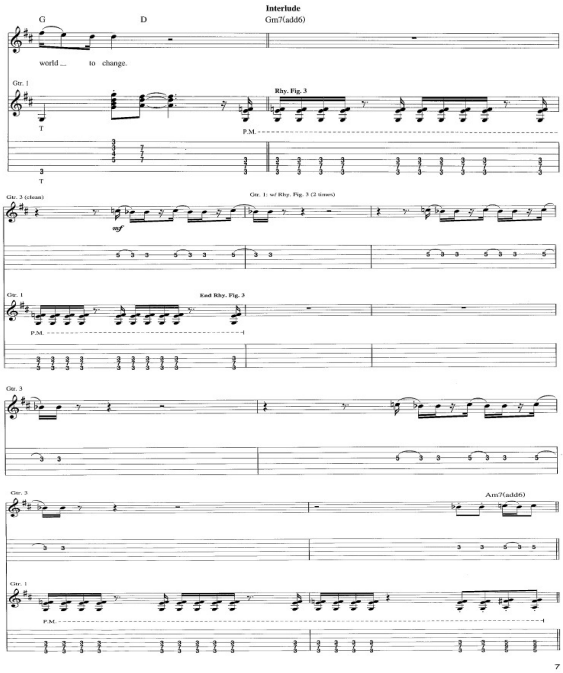
Verse는 Intro 악기 구성과 같이 드럼, 베이스, 기타 구성에서 보컬이 추가되어 곡이 진행된다. 악기들이 모두 절제된 형태로 연주하고 존 메이어의 차분한 보컬 멜로디가 청중들이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컬 멜로디가 비어있는 부분을 리드미컬한 기타 라인으로 채워주고 있다. 해당 코드의 코드톤과 텐션음을 해머링, 풀링오프 같은 기타 테크닉을 섞어 라인을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백킹이 멜로디컬하고 리드미컬하게 전달된다. 이 때문에 곡이 단순하지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특유의 코드 연주로 노래의 사운드를 기타가 잘 잡아주고 있다. 이는 지미 헨드릭스와, 스티비 레이본 등 존 메이어가 영향을 많이 받은 기타리스트들의 연주 특징이기도 하다.



[그림 3]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Cho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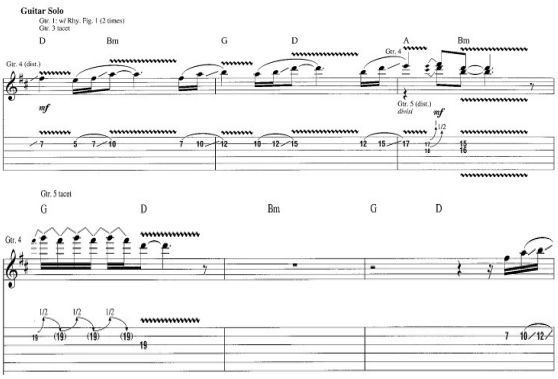
Chorus는 verse 파트에서 약간 고조된 분위기로 진행되지만, 여전히 악기와 보컬의 느낌이 절제되어있다.
verse와 같이 기타 코드 연주를 단순하게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의 코드톤과 텐션음을 해머링, 풀링오프 같은 기타 테크닉을 섞어 라인을 연주한다.
전체적인 악기 사운드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중간 중간 실로폰으로 연주되는 라인들과 기타 리프가 verse의 진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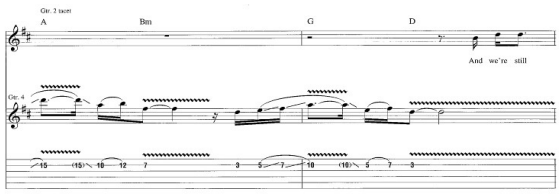
유사하지만, 리듬 섹션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곡의 구조에 따라 자연스러운 분위기 상승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악기의 추가, 리듬의 변화는 곡의 코드가 계속 같은 진행으로 연주될 때 송폼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곡의 화성 진행은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드 패턴을 반복하는데, 이는 곡의 메시지가 큰 감정의 변화보다는 현실을 수용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 이 간결한 코드 진행은 가사의 내용과 일치하여, 큰 변화보다는 꾸준히 지속되는 일종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음악적 도구로 사용된다.



[그림 4]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Bridge

Bridge는 곡에서 유일하게 다른 파트에 비해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때 D키의 4도 마이너 코드인 Gm7를 사용하면서 곡 조성의 변화와 반복적인 리듬으로 곡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존 메이어는 Bridge에서 허밍 멜로디의 변화를 통해 감정의 전환을 시도하며, 일종의 해소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Bridge에서도 여전히 곡의 절제된 스타일은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의 Gutiar Solo

Guitar Solo는 멜로디를 기타 2번줄에서 슬라이드와 비브라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연주한다. 기타에서 같은 음을 연주하더라도 그 음을 연주하는 몇 번째 줄인지에 따라서 기타의 톤과 연주감이 달라진다. 이러한 기타의 특성 때문에 기타연주 시 코드 보이싱과 멜로디를 어떤 줄에서 연주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 솔로에서 존 메이어는 2번줄에서 점차 상행하는 멜로디로 솔로 멜로디 라인을 이어간다. 이때도 비교적 간단한 기타 멜로디 라인으로 곡의 절제된 분위기를 이어간다.

3. 결 론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회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이를 기다리는 세대의 인내가 담겨 있다. 존 메이어는 곡을 통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낀 정치적 소외와 현실적 좌절감을 예술적으로 표현했으며, 대중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논문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곡은 대중음악이 사회적 비판과 공감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존 메이어의 음악이 유명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훌륭한 기타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가사와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점도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이 예술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삼호출판사. 파퓰러 음악용어 대사전. 세광 음악 출판사. 1991
[2] 이무영. "존 메이어(John Mayer)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이코리아』 2018.11.02
[3] John Mayer 3집 [Continnum]
[4] John Mayer. Continuum. USA: Hal Leonard, 2007.